

## Contents

DECEMBER VOL.07

- 02 MOVIE NEWS**  
영진위, 3D 영화 기술 컨퍼런스 개최
- 03 MOVIE NEWS**  
일본 한국영화 쇼케이스 2009,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운영자공고 등
- 04 FESTIVAL**  
서울독립영화제 2009
- 05 CINNO CHART**  
다큐멘터리 흥행 순위
- 06 FOREIGN NEWS**  
NBC 유니버설, 매각 가격 차이로  
인수 주춤 등
- 08 BOX OFFICE**  
국내 박스오피스
- 10 PRODUCTION NOTE**  
한국영화제작상황판
- 12 REPORT**  
일본 장르소설 영화 판권, 어디로 가나
- 14 INTERVIEW**  
<백야행> 박신우 감독
- 16 REVIEW**  
<나는 행복합니다>  
<백야행>
- 18 MAKING FILM**  
<비상> 현장 스케치
- 19 SPECIAL\_2009 한국 다큐멘터리**  
시장현황 및 전망  
주요작품 라인업  
인터뷰
- 24 로케이션 맵 인 한강**
- 34 CINNO TALK**  
<시간의 춤> 감독, 프로듀서
- 38 OPINION LOUNGE**  
오동진 / 이남
- 39 ART PLUS**  
12월 아트플러스 개봉작  
다양성영화 리뷰  
인터뷰\_<낙타는 말했다> 조규장 감독  
아트플러스 탐방\_대전아트시네마
- 47 PUZZLE**  
영화퍼즐 & 낱말 맞추기



<굿모닝 프리지덴트>



<내 사랑 내 고향>



## 영진위, 3D 영화 기술 컨퍼런스 개최

### 3D 단편 <뭇> 중심으로 국내 3D 영화의 가능성 진단

지난 11월 20일 영등포CGV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09 디지털 3D 시네마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영화인들과 관계자들이 300석 넘는 자리를 가득 채웠다. 3D 영화의 가능성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날 행사는 영진위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2K, 4K 디지털시네마 표준 동영상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상업용 3D 영화의 제작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하는 자리였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레드로버 김정희 소장, 지길웅 촬영감독, 스테레오픽처 최병선 과장, 영상예술인협회 장영욱 부회장 등이 국내 3D 영상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 영상의 결과와 과제 등을 발표했다. 사회는 광운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이승현 교수가 맡았다.

3D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20분짜리 3D 단편영화 <뭇>이 상영됐다. <뭇>은 영진위가 지난 4월부터 국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3D 영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3D 프로젝트.

<그녀는 예뻤다>의 최익환 감독이 연출하고 김영노 촬영감독, 김태영 프로듀서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은 <뭇>의 촬영기술을 분석하고 한국영화 제작현장의 3D 기술 수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최익환 감독은 "3D 영화는 장비, 인력 등의 변화로 기존 2D 영화보다 제작비와 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또 2D와 비교해 3D의 공간 인식, 피사체 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3D 촬영에 적합한 구도와 동선, 표현 장애물질 등을 언급했다. 후반작업을 맡은 C47 포스트프로덕션의 김창주 실장은 "후반작업은 촬영시간보다 3~4배의 시간이 소요되며 촬영시 현장에서 화면의 오차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3D 안경을 쓰고 일일이 화면을 대조해야 하는 수작업의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스테레오그래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테레오그래퍼는 입체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관장하는 3D 영화산업의 핵심 인력이다. 김영노 교수는 "3D 영화에서는 모든 단계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스태프들의 숙련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익환 감독 역시 비슷한 점을 지적한다. "좋은 스테레오그래퍼를 확보해야 입체의 안정감과 현장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양현 카이스트 연구원은 스테레오그래퍼의 직능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의 영화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스테레오그래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진위 기술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인프라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스테레오그래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할리우드 3D 업체의 기술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광운대, 레드로버, 스테레오픽처스 등의 업체와 함께 연구 중"이며 "시도와 검증해야 할 것이 많은 작업이므로 앞으로 연구 성과나 화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학회를 개최해 관계자들과 함께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정 기자



2009년 11월 31일(7호) | 발행처: 영화진흥위원회 | 발행인: 조희문 | 편집장: 유승찬 | 기자: 황희연, 김수연, 권해정 | 발간 담당부서: 영화정책센터(센터장: 김보연, 담당: 박야네스) 130-0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 전화: 02-9587-518 | 디자인·제작: designee 02-541-2465 | 일러스트: 허정애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습니다. 발행인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지에 실린 글은 위원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본 한국영화 쇼케이스 2009 열려

상영회 연일 매진... 세미나와 리셉션 성황



지난 11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영화 10편을 소개하는 '일본 한국영화 쇼케이스 2009'가 열렸다. 도쿄 유락 초스바루좌 극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30일까지 매일 두 차례 한국영화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영화를 일본에 소개하고 한일 영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막식에는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과

장진 감독, 이연우 감독, 최진호 감독 등이 참석해 무대인사와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쇼케이스 상영작은 <굿모닝 프레지던트> <집행자> <김씨 표류기> <거북이 달린다> <낮술>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 <반두비> <멋진 하루> <핸드폰> <요가학원>까지 총 10편으로 작품들은 연일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특히 <집행자>의 경우 20세기폭스에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영화 상영과 함께 세미나도 진행됐다. '한일 영화시장 확대 방안'을 주제로 양국의 배급 현황과 배급 실적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 측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인 박영은 일본 영화시장 연구원이, 일본 측은 가케오 요시오 키네마준보 영화 종합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양국에서의 자국 영화배급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100여 명 이상의 영화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는 일본 문화청 고다 타카후미 차장, 일본 한국문화원 강기홍 원장, 동경 FIL MeX 영화제 하야시 카나코 집행위원장, 동경 FIL MeX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최양일 감독, 전 문화청 문화부장이자 현 교토조형예술대의 테라와키 켄 교수 그리고 다수의 일본영화 배급사 관계자 등 한일 영화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한일 정부 차원에서 문화교류의 장이 된 것은 물론 일본의 영화 수입업체의 큰 관심을 모아 향후 한국영화의 일본 진출에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다.

## Hot News

### 프랑스와 미국에서 잇따라 한국영화제 열려



2009년 한 해의 마지막, 프랑스 루앙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영화제가 열렸다.

프랑스 루앙 아고라 한국영화제는 루앙대학교가 주최하는 영화제로 올해 5회째를 맞는다.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영화제의 테마는 '한국의 땅'. 주제에 맞게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영화들을 주로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영화는 <강원도의 힘> <공동경비구역 JSA>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이다. 또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송일곤 감독의 전작을 선보였다. <꽃섬> <거미숲> <갯마을> <마법사들>과 12월 3일 개봉하는 송 감독의 신작 <시간의 춤>이 공개됐다. 송일곤 감독은 영화제 개막에 맞춰 5박 6일 일정으로 행사에 참여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2005년 루앙시와 제주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덕분에 이번 행사에도 제주시 시장을 포함한 사절단과 공연단이 방문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캘리포니아 채프먼대학교에서도 채프먼 부산웹스트영화제가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된 부산웹스트영화제는 역대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들을 대거 선보였다.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달콤한 인생> <마더> <박쥐> 등 한국영화 12편이 소개됐다. 박찬욱, 김지운, 김영남 감독 등이 영화제를 방문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도 참석했다. 박찬욱 감독은 개막식에서 '1회 부산웹스트 아이콘상'을 수상했다.

채프먼대학교의 짐 토티 총장과 닷지 영화 및 미디어예술대학 이남 교수는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전 <중앙일보> 영화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는 채프먼대학의 이남 교수는 "앞으로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한국영화를 엄선해 감독과 함께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모집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를 공모한다.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및 배급 지원사업은 극장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 외에 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정 능력과 안정된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총 예산은 4억6천 만 원으로 전용관 임대 및 관리비와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비가 지원된다. 영진위는 "안정적으로 상영공간을 제공하고 관

람객의 접근성을 높여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 모집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5층에 자리한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리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약 9억 원이다. 국내 최초 비영리 공공미디어센터인 이곳은 영상 기 자체 대여 및 각종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영진위 진흥사업부에서 접수를 받으며 영진위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이 심사를 맡는다. 이번 선정 대상자는 2010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을 맡고 사업 수행 성과 평가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영화발전기금사업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FOCUS ON

#### 불법유통콘텐츠,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추진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6개의 웹하드 업체 대표와 헤비로더 등 80명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유통콘텐츠를 제공한 웹하드와 업로더 색출은 물론 그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에 대해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사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 중 3개월 동안 불법 유통된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많게는 9억 원 이상. 이 웹하드 업체의 총 수익의 절반가량이 불법 수익금인 셈이다. 그런가하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헤비로더 중 한 사람은 지난 6개월 동안 155,471건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했다. 다운로드 횟수는 총 1,120,414회. 그는 웹하드 업로드부터 약 1천만 원가량을 받았다.